

| 글. 송준환_ Song, Jun-hwan
· 동경대학 특임연구원

지역시민과 대학생 참여프로세스에 의한 역주변정비사업의 실현

- 효고현(兵庫県) 히메지시(姫路市) 히메지역앞광장 -

Station Area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Citizen and University Student Participation
- Himeji Station Square, Himeji, Hyogo -

히메지시(姫路市)는 효고현(兵庫県)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약 53만명의 중핵도시이다. 특히, 히메지역에서 정북쪽으로 약 800m에 위치한 히메지성(姫路城)은 199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연간 80만명의 관광객이 모이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2013년 4월, 히메지역앞광장이 사람 중심의 개성적인 광장으로 변모하였다.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분단된 히메지역 주변을 일체화하기 위해 2008년 효고현 주도 아래 철도고가화(高架化)를 완료하였고, 몇 차례에 걸친 계획안 변경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1년부터 북측역앞광장 정비가 시작되어 2년 만에 오픈하였다. 일본 내에서도 히메지역을 역사(驛舎) 및 역앞광장 정비의 성공사례로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는 주민과 대학생이 함께 계획안을 만들어가는 프로세스와 주변 지역자원을 고려한 건축 및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에서 바라본 지상부 잔디광장 전경

■ 지역시민과 대학생 참여에 의한 “계획안의 공공성” 확립

히메지역앞광장은 과거 택시 승하차장 등 자동차 중심의 이미지가 강하였으나, 지금은 보행 중심의 지상 잔디광장과 선큰광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지역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실제로 역을 이용하는 지역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만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2007년, 히메지시가 처음으로 공표한 광장계획안은 현재의 모습과 달리 보행광장과 자동차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고, 지상부의 택시로터리가 선큰광장을 둘러싸

고 있는 형태로, 선큰광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차량 중심의 교통광장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에 히메지성에 인접하고 있는 히메지역앞광장이 히메지시의 한관문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지역시민들의 강한 의견이 있었고, 히메지상공회의소, 상점가 연합회, 시의회 등 복수의 시민 그룹들이 독자적 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에 제안하기까지 이른다.

해결방안으로 시에서 채택한 방법은 2008~2009년에 실시된 건축계 대학생에 의한 워크숍¹⁾이었다. 시민들로부터의 거센 항의를 받은 시는 초기 해결책으로 공모

1) 이 워크숍은 통칭 샤렛트(Charrette)워크숍이라고 하는데, 샤렛트는 프랑스어로 짐마차라는 뜻이다. 에코르데보자르 프랑스 미술학교의 건축스튜디오의 마지막 발표날 작품을 마차에 실어 나르던 것을 빗댄 말로, 단기간에 집중하여 성과를 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샤렛트워크숍은 미국의 도시디자인과 마을만들기에서 많이 실시되는 형태로, 단일 건축사에 의한 건축완결의 시대에서 다양한 이해단체 및 전문가의 합의 형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뉴어비니즘 운동의 일환이다. 단기간에 행정가, 도시계획가, 교통계획가, 랜드스케이프 디자이너 등,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워크숍으로서, 메이지(明治)대학 코바야시 마사미(小林正美)교수에 의해서 일본에 도입되어 NPO법인 마을만들기 디자인서포트(<http://www.meiji-architecture.com/>)와 일본건축학회의 후원 하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전국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시되고 있다.



역사홀(캐슬뷰)에서 바라본 히메지성(좌)과 역사홀 전경(우)

전 개최를 고려했고, 자문 의뢰를 받은 코바야시(小林) 교수는 오히려 시민들의 의견에 부합되지 않는 안이 채택될 시 더 큰 문제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시민들과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제3자로서의 제안자 역할을 담당할 약 2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지역주민과 1주일간 합숙을 통해 계획안을 도출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넓은 범위의 지역시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시 또한 이에 적극대응하기 시작하였다.²⁾ 행정과 지역관계자 등에 의한 ‘공개포럼’을 개최하였고, 인터넷 공개방송 등을 통해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의 계획안, 민간의 복수 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공개하였다. 이에 2009년, 최종적으로 시장의 판단하에 사람과 차량을 명확히 분리하는 현재의 배치계획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 주변 지역자원을 고려한 건축 및 광장디자인의 실현

철도의 고가화 이후, 기존의 JR구(舊)역앞 빌딩의 지하골조형태를 그대로 본떠 바닥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활용한 선크가든은 지상에서 약 5m정도 하부에 위치한다. 가로70m, 세로23m 약 1,700㎡의 개방적인 공간과 함께 우드데크의 무대와 다양한 레벨을 활용한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이 선크광장은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설된 역앞빌딩과 기성시가지의 지하도를 유연하게 지하레벨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지상과도 3개소의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다.³⁾



선크광장의 전경(좌)과 지하공간을 활용한 바자회 모습(우)

특히, 신설되는 JR역앞 빌딩의 배치변경을 통해 히메지역사(驛舎) 홈에서 주요 지역자원인 히메지성의 조망이 가능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포토존이 형성되어 있다. 광장디자인에 있어서도 시는 코바야시 교수 등 5명의 전문가를 멤버로 하는 디자인 회의를 열어, 디자인의 통일성 등을 1년반에 걸쳐 검토하였다. 역앞 광장의 기본계획⁴⁾은 니켄(日建)설계가 실시하였고, 선크가든인 캐슬가든⁵⁾은 니켄(日建)설계 시빌이 맡았다. 향후, 버스터미널 등의 정비와 트랜짓 몰의 검토 등을 실시하여 전면적인 완성은 2015년 4월을 예정하고 있다.

■ 정비된 퍼블릭 스페이스의 유효활용을 위한 에리어매니지먼트 활동의 전개

2013년 10월,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에리어매니지먼트 준비조직(ひとネットワークひめじ一般社団法人⁶⁾)을 설립하였다. 완성된 선크광장 및 지하도 연결공간 그리고 지상 잔디광장 데크공간의, 면적 약 130㎡를 유효활용하기 위해 시로부터 업무위탁의 형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지역 농산물 퍼블릭 마켓활동, 콘서트, 바자회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선별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

2) 히메지시는 역앞광장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행정, 교통사업자, 관계권리자, 시민단체 등에 의한 「히메지역 북측역앞광장 정비추진회의」를 2012년까지 약5년에 걸쳐 17회 개최하였다.

3) 日経BP, 日経コンストラクション, pp. 12~18 2014. 6. 23

4) 명칭: 히메지역북측역앞광장 및 역앞가로개수사업(연결데크, 잔디광장 등), 발주자: 히메지시, 설계자: 니켄설계 등, 시공자: 토비시마(飛島)건설 등, 설계기간: 2006년 6월~2012년 3월, 공기: 2012년 2월~2015년 3월(예정), 설계비: 약 1억9천만엔, 공사비: 약 37억2천만엔

5) 명칭: 선크광장 및 지하도연결통로 개선사업, 발주자: 히메지시, 설계자: 니켄설계시빌, 시공자: 산요(山陽)건설 등, 설계기간: 2010년 7월~2011년 3월, 공기: 2011년 12월~2013년 9월, 설계비: 약 1억 8천만엔, 공사비: 약 15억8천만엔

6) 히토네트워크히메じ一般社団法人HP: <http://hitonethimeji.jp/>